

'25.11월 전산업생산 0.9% 증가

- 전산업·광공업·서비스업생산, 설비투자, 건설기성 등 산업활동 주요지표 증가 전환
- 성장 모멘텀 지속·확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, 내수 활성화 노력 등 강화

'25.11월 산업활동은 광공업(전월비 0.6% / 전년동월비 △1.4%) 및 서비스업(0.7% / 3.0%), 공공행정(0.5% / 0.5%)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생산(0.9% / 0.3%)이 증가했다.

- * 전산업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5.3Q)1.2/2.9 < (8)△0.3/△0.4 (9) 1.3/ 7.0 > (10)△2.7/△3.7 (11)0.9/ 0.3
- 광공업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5.3Q)1.6/6.0 < (8) 2.4/ 0.9 (9)△1.0/12.1 > (10)△4.2/△8.2 (11)0.6/△1.4
- 서비스업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5.3Q)0.9/3.2 < (8)△0.9/ 0.9 (9) 2.0/ 6.4 > (10)△0.7/ 0.8 (11)0.7/ 3.0
- 공공행정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5.3Q)1.6/0.3 < (8)△2.6/△1.2 (9)△1.1/ 1.0 > (10) 1.3/△2.3 (11)0.5/ 0.5

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(전월비 1.5% / 전년동월비 △0.1%), 건설기성(6.6% / △17.0%)이 증가했으나 소매판매(△3.3% / 0.8%)는 감소했다.

- * 설비투자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5.3Q)5.7/ 1.9 < (8)△1.3/ △0.5 (9)12.5/ 12.6 > (10)△14.1/△4.3 (11) 1.5/ △0.1
- 건설기성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5.3Q)2.7/△11.8 < (8)△5.3/△17.5 (9)12.2/△3.7 > (10)△21.1/△24.8 (11) 6.6/△17.0
- 소매판매(전기비/전년동기비, %): ('25.3Q)1.5/ 1.5 < (8)△2.4/ △0.4 (9)△0.1/ 2.2 > (10) 3.6/ 0.4 (11)△3.3/ 0.8

10월 장기간 연휴(10.3~10.9일) 등의 영향으로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의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,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·광공업·서비스업생산, 설비투자,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.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, 장기간 연휴 등을 감안해 10~11월을 묶어서 보면 3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를 지속했다. 향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호조¹⁾에 따른 수출 증가²⁾, 양호한 소비심리³⁾ 등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1」 주요기관 글로벌 D램 매출전망(억불)

- Gartner^{'25.9→'12월}: ('25)1,222→1,356[전년비 33.4→48.0%] ('26)1,587→2,361억불[29.9→74.1%]
- WSTS^{'25.7→'11월}: ('25)1,275→1,426[전년비 34.4→50.3%] ('26)1,573→2,070억불[23.4→45.2%]

2」 통관수출(% 전년동월비): ('25.1Q)△2.3 (2Q)2.1 (3Q)6.5 (10) 3.5 (11)8.7 (12.1~20)6.8

수출물량(% 전년동월비): ('25.1Q)△1.6 (2Q)5.6 (3Q)9.5 (10)△1.1 (11)6.8

3」 소비자심리지수(기준=100): ('24.12)88.2 ('25.3)93.4 (6)108.7 (9)110.1 (12)109.9<'25.下 평균^{110.7} 8년來 최고>

기업심리지수(기준=100): ('24.12)87.3 ('25.3)86.7 (6) 90.2 (9) 91.6 (12) 93.7<'24.7월^{95.5} 이후 17개월來 최고>

정부는 성장 모멘텀을 지속·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('26년 총지출 증가율 +8.1%)과 함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연장(5.0→3.5%, ~'26.6월) 하는 등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, AI 대전환·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, 생산적 금융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. 아울러, 한-미 전략적투자 추진, 통상환경 변화 및 경제안보 대응 등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조성중 (044-215-2730)
			사무관	최봉석 (044-215-2731)
			사무관	신승헌 (044-215-2732)
			사무관	원종혁 (044-215-2735)



1. 주요 내용

① **(생산)** 광공업(0.6%) · 서비스업(0.7%) · 공공행정(0.5%) 모두 증가

- ① **(광공업)** 전월 크게 늘었던 자동차가 조정(8.9→△3.6%) 받았으나, 반도체(△26.5→7.5%) 등이 늘면서 3개월만에 증가(△4.2→0.6%)

▶ <반도체> 생산·출하·재고 모두 증가

* 생산(전월비, %): ('25.3) 12.3 (4) △2.7 (5)△3.2 (6)6.7 (7)△3.6 (8)△3.5 (9)19.7 (10)△26.5 **(11) 7.5**
출하(전월비, %): ('25.3) 19.0 (4) △11.5 (5) 13.7 (6)9.0 (7)△6.2 (8)△2.2 (9) 4.6 (10)△21.9 **(11)12.1**
재고(전월비, %): ('25.3)△10.8 (4) 1.5 (5)△6.6 (6)1.1 (7)△9.1 (8)△3.2 (9)11.5 (10)△17.4 **(11) 1.3**

- 재고/출하비율은 출하(1.6%)가 재고(0.6%)보다 증가하며 하락(△1.1%p)

* 재고/출하비율(%): ('25.4)102.2 (5)104.5 (6)102.5 (7)101.9 (8)100.1 (9)105.4 (10)106.0 (11)104.9

- ② **(서비스)** 도소매업, 숙박·음식업 등이 감소했으나 금융·보험업, 협회·수리·기타개인서비스업 등 늘면서 증가(△0.7→0.7%)

		'24	1/4	2/4	3/4	4/4	'25.1/4	'25.2/4	'25.3/4	9월	10월	11월	(업종별, 전월비, %)
소 산업	<전기비, %>	-	0.4	0.0	△0.4	0.4	0.0	0.0	1.2	1.3	△2.7	0.9	(광공업) 0.6 (건설업) 6.6 (서비스업)0.7 (공공행정)0.5
	<전년동기비, %>	1.5	2.9	2.2	0.5	0.6	△0.5	0.3	2.9	7.0	△3.7	0.3	
광공업	<전기비, %>	-	△0.8	1.8	△0.5	1.5	0.2	△0.1	1.6	△1.0	△4.2	0.6	(반도체) 7.5 (전자부품) 5.0 (자동차)△3.6 (기타운송장비)△12.2
	<전년동기비, %>	4.1	5.3	5.2	2.4	3.5	2.0	2.1	6.0	12.1	△8.2	△1.4	
서비스업	<전기비, %>	-	0.3	0.0	△0.3	0.7	0.3	0.7	0.9	2.0	△0.7	0.7	(금융·보험)2.2 (협회·수리·개인)11.1 (도소매)△1.6 (숙박·음식) △0.3
	<전년동기비, %>	1.1	2.1	1.6	0.2	0.6	0.4	1.4	3.2	6.4	0.8	3.0	
공공행정	<전기비, %>	-	△0.5	△0.9	1.7	△2.0	2.4	△3.0	1.3	△1.1	1.3	0.5	
	<전년동기비, %>	△0.8	△1.7	△0.5	1.7	△2.1	0.9	△0.4	0.3	1.0	△2.3	0.5	

2 [지출] 소매판매(△3.3%) 감소, 설비투자(1.5%) · 건설기성(6.6%) 증가

- ① (소매판매) 통신기기 등 내구재(△0.6%), 의복 등 준내구재(△3.6%),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(△4.3%) 판매 줄면서 감소(3.6→△3.3%)

* '25.10 → 11월(전월비, %): (내구재)△4.5→△0.6 (준내구재)5.0→△3.6 (비내구재)7.0→△4.3

- 업체별로는 슈퍼마켓·잡화점(△8.7%), 대형마트(△14.1%), 전문소매점(△2.7%) 등 감소, 승용차·연료소매점(0.8%), 면세점(3.1%) 등 증가

- ② (설비투자) 자동차·항공기 등 운송장비 감소에도 일반산업용 기계, 정밀기기 등 기계류가 늘며 증가(△14.1→1.5%)

-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민간·공공 모두 늘며 증가

* 기계수주(동기비, %): ('24)△2.7 ('25.1Q)18.3 (2Q)5.1 (3Q)△13.5 (10)△16.1 (11)16.9[(公)155.9 (民)11.1]

- ③ (건설기성) 토목이 줄었으나 건축이 늘며 증가(△21.1→6.6%)

-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비로는 건축(△7.3%)·토목(△17.3%) 모두 줄며 감소(△9.2%)했으나, 전월비로는 증가(63.3%)

* 건설수주(동기비, %): ('24)10.9 ('25.1Q)1.1 (2Q)△5.4 (3Q)29.4 (10)△35.4 (11)△9.2[(公)△34.1 (民)8.8]
건설수주(전월비, %): ('25.1Q)△18.8 (2Q)6.6 (3Q)36.1 (10)△29.5 (11)63.3

		'24	1/4	2/4	3/4	4/4	'25.1/4	'25.2/4	'25.3/4	9월	10월	11월	(업종별, 전월비, %)
소매 판매	<전기비, %>	-	△2.2	△0.3	0.7	△0.4	0.4	△0.9	1.5	△0.1	3.6	△3.3	(내구재)△0.6 (준내구재)△3.6 (비내구재)△4.3
	<전년동기비, %>	△2.1	△1.6	△3.1	△1.5	△2.0	△0.3	0.0	1.5	2.2	0.4	0.8	
설비 투자	<전기비, %>	-	△1.5	△1.4	10.2	△1.8	△1.7	0.0	5.7	12.5	△14.1	1.5	(기계류) 5.0
	<전년동기비, %>	2.9	△1.4	△3.3	11.5	5.3	5.7	5.3	1.9	12.6	△4.3	△0.1	(운송장비)△6.5
건설 기성	<전기비, %>	-	7.7	△8.2	△3.8	△5.1	△6.4	△3.2	2.7	12.2	△21.1	6.6	(건축) 9.6
	<전년동기비, %>	△4.7	4.0	△3.1	△9.1	△9.7	△21.2	△17.4	△11.8	△3.7	△24.8	△17.0	(토목)△1.1

3 [경기 순환변동치] 동행지수 하락(△0.4p), 선행지수 상승(0.3p)

- ① (동행) 서비스업·非농림취업자 등 증가에도 광공업생산 등 줄며 하락

* 동행지수 순환변동치: ('25.5)99.1 (6)99.1 (7)99.0 (8)99.2 (9)99.4 (10)99.0 (11)98.6<△0.4p>

- ② (선행) 건설수주 등 감소에도 코스피·장단기금리차 등 늘며 상승

* 선행지수 순환변동치: ('25.5)100.8 (6)101.0 (7)101.6 (8)102.1 (9)102.2 (10)102.2 (11)102.5<0.3p>

2. 평가 및 대응

□ 장기간 연휴(10.3~10.9일) 등으로 산업활동 주요지표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전월 감소했던 생산, 설비투자, 건설기성 등 증가 전환

○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감소(3.6→△3.3%)했으나, 연휴 등 감안해 10~11월을 묶어서 보면 3분기 대비 증가

- 전년동월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 지속

* 소매판매(% , 전기비): ('25.1Q)0.4 (2Q)△0.9 (3Q)1.5 (10~11)1.0

(% , 동기비): ('25.1Q)△0.3 (2Q)0.0 (3Q)1.5<(8)△0.4 (9)2.2> (10)0.4 (11)0.8

□ 글로벌 반도체 호조¹에 따른 수출 증가², 양호한 소비심리³ 등이 향후 경기에 긍정적 작용 예상

1」 주요기관 글로벌 D램 매출전망(억불)

- Gartner^{'25.9→12월}: ('25)1,222→1,356[전년비 33.4→48.0%] ('26)1,587→2,361억불[29.9→74.1%]

- WSTS^{'25.7→11월}: ('25)1,275→1,426[전년비 34.4→50.3%] ('26)1,573→2,070억불[23.4→45.2%]

2」 통관수출(% , 전년동월비): ('25.1Q)△2.3 (2Q)2.1 (3Q)6.5 (10) 3.5 (11)8.7 (12.1~20)6.8

수출물량(% , 전년동월비): ('25.1Q)△1.6 (2Q)5.6 (3Q)9.5 (10)△1.1 (11)6.8

3」 소비자심리지수(기준=100): ('24.12)88.2 ('25.3)93.4 (6)108.7 (9)110.1 (12)109.9<'25下 평균¹¹⁰⁷ 8년來 최고

기업심리지수(기준=100): ('24.12)87.3 ('25.3)86.7 (6) 90.2 (9) 91.6 (12) 93.7<'24.7월⁸⁵⁵ 이후 17개월來 최고

□ 성장 모멘텀 지속·확산 위해 1월 중 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 발표·추진

○ 적극적 재정정책('26년 총지출 증가율 +8.1%)과 함께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 연장(5.0→3.5%, ~'26.6월) 등 내수 활성화 노력 강화

○ AI 대전환·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, 생산적 금융, 지역 균형성장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에 만전

○ 한-미 전략적투자 추진, 통상환경 변화 및 경제 안보 대응 등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